

TV 12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program listings for each channel.

'미드' 인기 시정 행태 변화

심야 편성에도 시청률 상승... 젊은층 여가 선호 패턴도 바뀌어

'미드'(미국 드라마의 줄임말)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뜨거워지고 인기를 얻으면서 시청자들의 전통적인 TV 시청 행태마저 변화하고 있다. 케이블·위성채널에서 지상파인 SBS로 자리를 옮긴 '프리즌 브레이크'(사진)가 5월 26일 첫방송에서 심야 방송으로는 놀라울 수 준인 6%대(지역에 따라서는 8%까지 치솟기도 했다)의 전국 가구 시청률을 기록한 데 이어 MBC 'CSI 마이애미'도 3일 방송에서 6%대의 시청률을 기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자정 넘은 심야방송 프로그램들이

0~3%대의 시청률을 보이는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 또한 케이블·위성채널들이 인기 '미드'를 24시간 혹은 그 보다 오랫동안 연속해서 틀어주는 'OO데이' 역시 마니아층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같은 반응은 확실한 전통적인 시청 패턴과는 차별화를 이룬다. 이러한 편성 시정 행태를 위해 주로 공휴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해도 시청자들이 '미드'를 보기 위해 잠을 애써 쫓고 심지어는 직장에 하루 휴가를 내기도 하는 모습은 분명 새로운 트렌드다.



케이블·위성 채널의 '미드' 마라톤 편성은 젊은층의 여가 선호 패턴도 바꿨다. 할 일이 없어 '방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드'를 연속해서 보기 위해 다른 여가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되는 것. 특히 이 같은 시청은 '대체제'로 분류할 수 있는 극장 관람이나 비디오·DVD 관람에 비해 훨씬 편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전인화, SBS '왕과 나'로 돌아온다

인수대비 역 맡아... '여인천하' 이후 5년만에 안방 복귀

배우 전인화(사진)가 8월 방송되는 SBS 대하사극 '왕과 나'(극본 유동운, 연출 김재홍)를 통해 5년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2002년 SBS '여인천하'의 문정왕후 역을 끝으로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았던 전인화는 '왕과 나'에서 인수대비 역을 맡아 또다시 왕

비로 드라마에 컴백한다. '여인천하' 역시 유동운·김재홍 콤비가 만들었던 작품이다. '왕과 나'는 문종 때부터 연산군에 이르기까지 환관으로서 임금을 섬긴 내시 처신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그린 드라마로 배우 오만석이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장항선 이 노년의 처신을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전인화와 함께 '왕과 나'에는 전광렬 이 내시부의 수장 조지혁 역을, 구혜선이 폐비 윤씨 역으로 캐스팅됐다.

Living TV advertisement for '세상 속으로 - 온천과 요리가 만났을 때' (Into the World - When Onsen and Food Met) featuring a horse and ride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본점 and 총장점.

케이블·위성TV 12월

Large table listing various TV channels (YTN, MBN, KTV, MBC MOVIES, OCN,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 케이블 TV 가입신청 및 문의 080-398-3355(전국공통)

Advertisement for BBS 광주광역시방송 (BBS Gwangju City Broadcasting) with website and contact info.